

스포츠 스타들 이번엔 고향의 명예 걸고 금메달 도전



양궁 광주 안산



육상 전남 김장우



근대5종 광주 전용태



복싱 전남 임애지

제104회 전국체전을 맞아 항저우아시아안계임에서 금빛 낭보를 전했던 스타는 물론 지역 유망주들이 고향의 명예를 걸고 메달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전통적인 효자 종목 육상·양궁 등 총 48개 종목에 1549명(선수 1058, 임원 491)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남 선수단은 49개 종목에 걸쳐 2114명(선수 1319, 임원 596)으로 구성됐다.

광주 대표로는 아시아안계임 근대5종에서 2관왕을 차지한 전용태(광주시청)와 도쿄올림픽 3관왕과 아시아안계임 여자 단체전에서 금에 빛나는 양궁스타 안산(광주여대), 100m 한국기록 보유자인 육상 김국영(광주시청), '허들여왕' 정예림(광주시청) 등이 출전한다.

전용태와 안산, 김국영은 다관왕에 도전한다. 지난해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계주까지 3관왕을 차지했던 전용태는 올해 대회에서도 3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안산 역시 대학생부에서 항저우아시아안계임 여자

광주 - 양궁 안산·근대5종 전용태·육상 김국영 다관왕 도전 전남 - 포환 정일우·세단뛰기 김장우·복싱 임애지 등 기대

개인전 결승에서 맞붙은 임시현과 '리턴 매치'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명예회복을 위해 금빛과 념을 겨냥한다. 팀 우승을 포함해 2관왕을 노린다.

고승환(광주시청)과 함께 아시아안계임 남자 400m 계주에서 값진 동메달을 차지한 김국영은 남자 일반부 100m에 출전 금메달을 노리며, 남자 일반부 400m 계주에서도 한국 신기록 달성과 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항저우아시아안계임 수영 다이빙 3m 스프링보드에서 은메달을 딴 이재경(광주시체육회)을 비롯해 김서경·정다연(광주시체육회)의 메달 획득이 유력

시되며, 역시 항저우에서 메디슨(2인) 30km에서 동메달을 따낸 자전거 이주미(국민체육진흥공단)도 확실한 금메달 후보다.

이 외에도 육상 김찬송(광주체고)과 지난해 각종 전국대회를 휩쓸며 양학선의 뒤를 잇는 한국 체조 유망주로 이름을 알린 문경연(광주체고), 유도 이혜경(광주도시철도공사), 핀수영 양현지(광주체고), 레슬링 김찬영(광주체고), 양궁 이승운(광주남구청) 등이 '개인종목'에서 기량을 펼친다.

단체전 종목에서는 궁도(광주시체육회), 축구(조선대, 금호고), 스쿼시(광주시체육회), 농구

(광주대, 수피아여고), 배구(광주여대, 조선대), 소프트테니스(동신고), 양궁(광주여대) 등의 종목이 선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 전남은 개최지 이점을 살려 금 38개를 포함 180여개의 메달 획득을 노린다.

최근 항저우아시아안계임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사격 이계림(담양군청), 자전거 김하은(나주시청), 우수 김민수(전남도청), 유도 김지정(순천시청), 배드민턴 정나은(화순군청), 스쿼시 양연수(전남도청)가 출전한다.

이어 전국체전 8연패에 도전하는 육상 포환던지

기 정일우(여수시청)와 5연패에 도전하는 육상 해머던지기 박서진(목포시청)과 우수 윤웅진(전남도청), 아시아선수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세단뛰기 김장우(장흥군청),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박초롱(화순군체육회), 근대5종 서창원(전남도청), 당구 서서아, 김행직 등 스타선수들이 메달 사냥을 시작한다.

차세대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다.

국내 최고 육상 단거리 유망주 배건울(전남체고)과 이은빈(전남체고),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 3관왕을 차지한 자전거 나윤서(전남미용고)와 사격 강병무(전남체고), 기계체조 주니어 국가대표 나중민(전남체육고) 등 유망주 선수들이 전국 정상에 도전한다.

단체종목에서는 한국전력력비팀과 목포시청 하키팀이 제103회 전국체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생명의 울림 속으로' ... 전국체전 개회식 올림픽 버금가는 무대 준비

'생명의 울림 속으로'.

제104회 전국체전이 15년만에 전남에서 열린 가운데 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이 올림픽에 버금가는 역대급 무대로 준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비전과 저력을 전국민에게 보여줄 개회식이 13일 오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생명의 울림 속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개회식에는 선수단과 심판단 2500명, 초청자

1700명, 관람객 1만1600여명과 출연진 350여명 등 1만6000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

오후 6시 20분 공식행사에 앞서 오후 5시 20분부터 태권무와 댄스스포츠, 힙합댄스 등 사전공연과 레크레이션이 진행된다.

선수단이 입장하고 개식이 선언되면 '생명의 울림 속으로'라는 대주제로 태고의 전남에서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미디어와 접목한 마당놀

이와 뮤지컬 형식의 주제공연이 시작된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주제공연 1막 '태동하라 태고의 전남' 공연에 이어 대회가 올라가고 개회사와 기념사 등 의식행사 후 주제공연 2막 '선포하라 신 전남시대'와 3막 '나아가라 전남의 울림'이 차례로 이어진다. 출연진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무용수들이다.

특히 전국체전 최초로 목포종합경기장 중앙에

대형 수조를 설치하고 워터스크린과 분수를 설치해 물을 활용한 연출을 극대화했다고 전해진다.

성화 점화료 80분의 공식 행사가 끝나면 케이팝(K-POP) 공연도 준비됐다. 인기 트로트 가수 송가인, 장민호, 박지현과, 최자와 개코로 구성된 2인조 힙합그룹 다이나믹듀오, 6인조 걸그룹 에버글로우가 출연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인권상황 인권위, 현장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장을 방문해 선수 인권상황과 경기장 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체전은 13일 개막해 19일까지, 장애인체전은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목포, 여수, 순천 일대에서 열린다.

전국체전에서는 야구·농구·탁구·육상·유도 5개 종목, 장애인체전에서는 축구·배드민턴·역도·태권도 4개 종목 등 총 9개 종목을 모니터링한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체전을 비롯한 총 28개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전국체전 기간 중 현장에 인권상담실(스포츠윤리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도민인권상담센터(전라남도)를 운영한다. 또 이날은 전국체전 개최 도시인 목포에서 '스포츠 인권의 날' 기념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에 대해 "스포츠 경기 현장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선수·지도자·대한체육회·협회 관계자 등의 인권 의식과 시설, 환경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학생 선수단, 41개 종목 510명 출전

15년만에 안방 무대 출격

전남지역 학생 선수들이 15년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선전을 다짐하며 출격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전남 곳곳에서 열리는 104회 전국체전에 41개 종목 510명의 학생선수가 출전한다.

전남 학생선수들은 육상과 자전거·레슬링·바둑·댄스스포츠 등에서 상위 입상을 기대하고 있다.

육상 배건울·이은빈(전남체고)은 3관왕을 노리고 있으며 자전거 나윤서(전남체고)와 댄스스포츠 김선우, 윤현정(여수정보고)도 2관왕이 유력하다.

또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실력을 갖추고 있는 지

역의 체육 유망주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연서연(화순고)·박성주(전남기술고)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열린 배드민턴 혼합복식 18세이하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서연은 2023 올림바토르 동아시아 청소년경기대회 여자복식 1위, 네덜란드주니어 오픈 혼합복식 1위, 전국학교 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고

등부 혼합복식 1위를 차지했다.

도 교육청은 15년 만에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청소년기자단을 운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생방송한다.

또 진도국악고가 남도의 정서를 반영해 작곡한 사상곡이 전국체전 선수입장식에서 공개되며 학생 응원단 1만명이 각 경기장에서 분위기를 띄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15년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체육 인재들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미래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선수들의 기량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